

1990년대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申承澈*

서 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구조

1960년대 이후로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를 겪어 오는 과정에서 생활 환경은 물론, 우리들의 가치관과 의식 구조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차용되어 온 서구식 제도나 규범들이 전통의 것과 혼합되면서 아노미적 현상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제는 예전의 무조건적인 서구 모방과는 달리 다시금 동양의 정서로 회귀하려는 기운도 나타나고 있는 한편,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신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는 등 우리 사회는 점차 다원화의 기류를 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소득의 증가로 대중 소비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층들이 소비에 본격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소비 양태가 다양화하기 시작하였다. 필수적 소비 단계에서의 획일적인 소비 양태를 보이던 소비자들이 문화적 소비로 이행하면서 기존의 합리성과 이성적 행위에 바탕을 둔 제 행동들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예전과 같은 연령, 성, 학력 등을 비롯한 인구 통계학적 변수만으로는 소비자를 파악하는 것이 점차 불가능해지고 있다.

산업사회까지는 중앙집권적인 사회 체제는 특성으로 권력자나 자본가들이 사회를 구축해 나가고 일반인들은 이에 적응하는 체제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개 개인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던 성숙 산업사회 이전까지는 라이프스타일이란 해당 체제에 적응해 사는 삶의 방식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어서, 사회와 문화가 라이프스타일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체제에 적응하면서 형성된 가치관이나 의식 구조 역시 라이프스타일의 형성에 영향을 주어진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숙 산업사회에 도래하면서 대중이라는 전일성에 기초한 집단이 붕괴되면서 라이프스타일 역시 획일성을 벗어나고 있다. 대중의 붕괴는 사회 체제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의식 변화에서부터 야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권력의 이동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존의 사회에서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한 소수 엘리트들의 권력이 점차 대중에게로 분산되면서 개체 존재의 중요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 의하여 대중은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 책임연구원, 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 생산 및 경영과학 전공

어느 정도의 직무 경험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령적 단층이 생기고 장래 부족 노동력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참고문헌

신유근, 「인사 관리」 경문사, 1990.
Ghorpade, Jai, *Job Analysis*, Prentice Hall, 1988.

<표 1> 직무 배분표

부 _____ 과 _____ 확인 : 소속 부장 인

① 분장 업무	② 업무 내용(단위 업무)	③ 총시간 구성비	④ 직 급	⑤ 성 명

- 기재 요령: ① 본 조사표는 단위 조직 책임자(부장 또는 과장)가 직접 작성
 ② 분장 업무는 단위 조직의 실제 업무 분장 내용을 기입
 ③ 업무 내용은 조직 구성원에게 배분된 직무 내용을 기입
 ④ 총시간 구성비는 단위 조직 전체 업무에 대한 시간 비율

<표 2> 업무량 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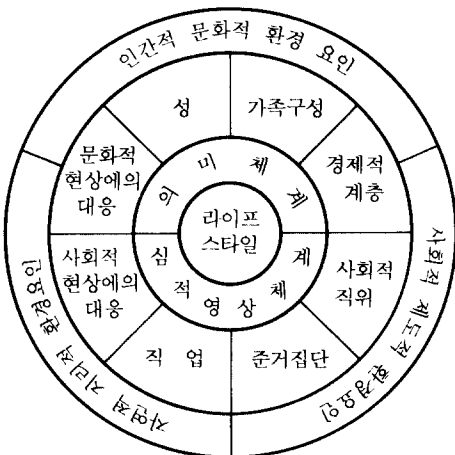
소 속	부 과 계	업무량 조사표					확 인	소 속 과 장		
		직 무 명 (성 명)	직 급	인 원	성 별	남 녀		성 명	인	
주 업 무 순 위	요 소 작 업	빈 도					단 위 당 소 요 시 간	총 시 간	환 산 시 간	비 고
		일	주	월	연	수시				

- ① 빈도는 일, 주, 월, 연단중 하나만 기입
 ② 단위당 소요 시간은 분으로 통일 기입
 ③ 총시간은 (빈도 × 단위당 소요 시간)
 ④ 환산 시간은 기입 불필요

것이다.

이러한 변화 구조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구조로서, 스스로 사회와 문화를 창조해 간 선진국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경제적으로 아직은 이러한 변화를 보인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 동안은 선진국을 창조적으로 모방해야 하는 여건이므로 이들 앞선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라이프스타일의 흐름이 중요한 시사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구조는 선진국에 비하여 사회 체제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구조는 우리가 자생적 문화 기반을 가지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앞으로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되는 우리나라의 사회 변동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및 라이프스타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라이프스타일 결정 요인



자료: 廣瀨芳弘, 「商學論究」, 關西大學, 제22권, 1973, 50.

우리나라 사회환경의 변화

사회변동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사회적 측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사회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광범위한 부문에서 다각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우리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관련해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인구 저성장기:** 현재 1%를 밑도는 인구 성장률은 다소 증감은 있겠으나,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인구 성장률의 둔화는 자녀 수 감소 추세와 독신 증가 추세에 따른 것인데, 궁극적으로 경제 활동 인구를 감소시키고 인구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산업 구조나 고용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산업 구조나 고용 구조의 변화는 우리 국민의 생활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는 곧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② **자녀 수 감소 추세:** 자녀 수 감소 추세는 개인의 삶이나 부부 중심의 삶이 중시되는 경향과 정부의 정책적 유인, 그리고 세계 환경 문제 등이 맞물려 지속될 것이다. 자녀 수 감소 추세는 부부의 라이프스타일과 가계의 소비 패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자녀에 대한 의식도 변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자녀 수가 감소함에 따른 육아 기간의 단축은 주부의 의식과 생활 패턴에 많은 변화를 가져

을 것이다. 그리고 자녀 수의 감소는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사랑을 더하게 하여 자녀를 위한 소비 지출을 더욱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인데, 맞벌이 부부의 증가 추세로 자녀들의 주체적 소비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 시장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자녀를 위한 소비 시장의 확대는 소비 주체의 다원화에 일조하면서, 라이프스타일의 다원화에도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③ 고령화: 자녀 수 감소 추세와 수명 연장 추세로 나타나는 고령화 현상은 미래 인구 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이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는 각종 제도나 생활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먼저 생산 측면에서 볼 때, 산업 구조나 고용 구조는 물론이고, 취업 구조, 작업 환경을 비롯한 근로 환경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비 측면에서 볼 때는 이들이 소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이들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하위 문화의 탄생은 소비 주체의 다원화에 기여하면서, 궁극적으로 다원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의 한 흐름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④ 도시화: 이미 도시 사회의 성격을 보이고 있는 우리 나라는 지속적인 산업화 정책의 추진으로 더욱 도시 사회화하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대도시와 중도시 위주로 개발 정책이 이루어진 때문에 일부 읍이나 면, 부락의 경우 산업사회 이전의 전통적인 생활 환경이 병존할 수 있었으나, 궁극적으로 이들 지역까지 개발의 손길이 미치게 될 것이어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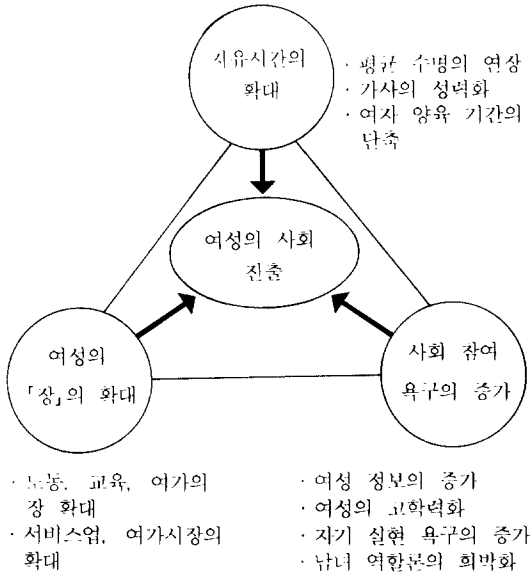
의 생활 환경과 도시인의 생활양식이 이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파급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개발 측면에서 낙후된 이들 지역들의 개발이 이전의 도시 개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는 재고가 요구된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염증을 느낀 층들이 전원 생활을 선호하면서 이들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점차 높아질 것이며, 자연 파괴에 따라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환경 보호 움직임으로 이들 지역을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거셀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전통지향적인 움직임 역시 이들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을 어느 정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다원화 사회의 한 기류를 형성하면서 라이프스타일의 다원화를 초래할 것이다.

⑤ 여성의 사회 참여: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는 것은 성역할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여러 측면에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가사 노동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들의 자주적 소득의 증가로 이들의 적극적 소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다산도 기피되고 있으며, 사회 생활을 위하여 가정 생활을 포기하는 여성도 늘게 될 것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로부터 가장 큰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히 남성일 것이다. 기존의 남성 우위의 구조가 남녀 평등의 구조로 바뀌에 따라 남성 의존적인 여성의 삶이 점차 여성 자신이라는 개체를 중시하는 삶으로 변모하는 것은 이들의 자주적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그림 2> 여성의 사회진출을 자극하는 요인



자료: 博報堂總合研究所, 「時流は女流」,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91. 18.

여 권위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남성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부 취업의 증가 추세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부부 역할 변화라는 직접적인 현상 외에도, 이들 주부들을 사회에 원활히 수용하기 위한 탁아소 제도의 도입, 주부의 가사를 고려한 유연 근무 체제, 그리고 성과 위주의 인사 고과 제도의 변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다.

⑥ 신중산층의 확대: 고등 교육을 받은 화이트 칼라 계층의 확대는 의식있는 계층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전과 같은 동조성에 바탕을 둔 획일적 성격의 대중성이 붕괴됨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 주장이 강해진다는 측면에서 개성화라는 라이프스타일의 한 흐름의 바탕이 되고 있다.

한 가지 부연할 것은, 과학 입국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기술 전문직을 비롯한 고등 교육의 전문화 추세가 더욱 진행될 것인데, 이 역시도 라이프스타일의 분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⑦ 다원화 사회: 산업화의 지속과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산업 문명에 대한 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새로운 청년 문화의 등장, 여성의 역할 변화, 고령층과 유년층 소비의 증가에 따른 소비 주체의 다원화, 소외 계층의 욕구 분출, 전문 기술직의 확대 등으로 대중성이 붕괴되면서 다원화 사회화하는 것은 다양한 하위 문화 집단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 집단의 분화 현상은 대중의 붕괴를 초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라이프스타일의 다원화를 가져올 것이다.

⑧ 환경 문제 심화: 범세계적인 지구 환경 보호 움직임과 그 동안의 국내 산업화에 따른 환경 오염으로 국내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 문제의 심화는 라이프스타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건강 지향적인 라이프스타일이 등장하고 있으며, 쾌적한 생활 공간이나 작업 공간을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의식의 고조는 소비 패턴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들의 환경 지향적인 움직임은 일상용품에까지 제품 선호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있다.

경제적 측면

① 소득 증대: 꾸준한 경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나라는 이제 1인당 국민 소

득 7천 달러를 넘으면서 필수적 소비 단계에서 벗어나 문화적 소비로 이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만 해도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중산층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다. 실제로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소득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급속한 성장기는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이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우리의 경제 여건으로 말미암아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라이프스타일의 추세는 질적 만족을 추구하려는 계층이 증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② 근무 시간 단축 추세: 침체되었던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30분 일 더하기 운동”이 일부에서 일고 있으나, 근무 시간이 단축되는 추세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물론, 이러한 근무 시간 단축 추세는 개인의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피고용자들의 의식 변화가 한몫 한 것이겠으나, 한편으로 생산성이 증가하고 정보화와 자동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

근무 시간의 단축은 개인의 여가 시간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각종 여가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다양한 여가 활동을 누리려는 층들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여유 시간을 활용한 창의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층들도 증가할 것이어서 생산소비 추세도 본격화될 것이며, 가족 단위의 삶의 비중도 높게 될 것이다.

③ 피고용층의 증가: 수출 지향적인 국내의

산업 구조로 말미암아 세계 기업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국내 기업들은 더욱 전문화하게 될 것이며, 산업 구조의 고도화로 기업들이 더욱 조직화되면서 피고용층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피고용층의 증가는 신용 사회를 본격화함으로써 신용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소비 문화를 초래할 것이어서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소비 문화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용층의 증가는 전문화 추세와 더불어 노동 소외 현상을 더욱 야기시킬 것인데, 이에 대한 보상 심리로 생산소비 경향이나 DIY 경향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④ 다양한 근무 체제: 노동 인력 부족 현상이 야기되면서 주부, 고령층을 비롯한 다양한 층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근무 체제는 더욱 다양화할 것이다. 다양한 층의 노동 시장에서의 참여는 필수적으로 다양한 근무 체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어서 기존의 집중화에 바탕을 둔 노동 체제를 분산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산화 움직임은 시간대별 획일적인 생활 패턴을 붕괴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분산화도 초래함으로써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⑤ 사내 복지 제도의 발달: 서구의 기업 문화와는 달리 가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직원 개개인의 삶에 대한 욕구를 직장내에서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웬만한 기업이면 각종 씨클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여가 활동 지원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러한 활동에는 가족들까지도 포함시키는 경향이 늘고 있어, 조직원 개개인의 개인 혹은 가족의 삶의 일부분을 조직에서 흡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힘입어 각종 여가 활동들이 소득 이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의 독특한 추세라 할 수 있는데, 한국형 기업 문화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을 중심으로 한 여가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⑥ 경제 교류의 확대: 경제 성장에 따른 경제 규모의 확대로 해외 교역량이 증가하는 것은 타국의 이질적인 문화 집단과의 교류의 폭을 넓히게 되면서 우리 문화의 국제화와 외국 문화의 유입을 더욱 자극할 것이다. 이로써 우리들의 라이프스타일은 국제화라는 추세와 최근 들어 가시화하고 있는 전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맞물려 동서양 문화가 혼합되면서 더욱 다원화하게 될 것이다.

문화적 측면

① 뉴미디어의 등장: CATV, PC 통신, 레이저디스크를 비롯한 뉴미디어들의 보급 확대 추세는 궁극적으로 매체의 분산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매체의 분산화는 기존의 산업사회에서의 획일성에 기초한 대중성을 붕괴시키는 것으로서, 대중성에 편승한 특정 집단의 독점적 문화 소비 체제를 변화시킬 것이다. 특정 집단의 독점적 문화 소비 경향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던 각종 문화 활동들로 인하여 소외되었던 층들이 매체의 분산화에 힘입어 적극적인 소비 주체로 등장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대중 문화는 점차로 다원화 문화로 변모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라이프스타일의 다원화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② 정보 통신의 발달: 정보 통신의 발달은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측면에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정보 통신의 발달은 정보의 사각 지대를 없앴으로써 정보 독점에 의하여 편익을 누리던 소수 계층들의 기득권이 붕괴됨을 의미한다. 이에 힘입어 사회 구조는 더욱 짜임새있는 구조로 변화하게 될 것이고, 사회 이동성 역시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이프스타일과 관련하여 보면, 사회 이동성의 감소로 예약 문화가 일반화될 것이고, 정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의 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되는 무수한 정보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의미 해석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해될 수 있고 즉각적으로 소구될 수 있도록 기호화하게 될 것이어서 일반인들의 의사 결정 시간이 더욱 빨라지게 되면서 초시간적인 생활 패턴이 보편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 서비스에 힘입어 생산소비 경향도 더욱 증가할 것이며, 홈뱅킹, 홈쇼핑 등 일상의 라이프스타일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③ 자동차 대중화: 자동차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패밀리카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상황으로 가족 단위의 여가 활동을 비롯한 가족 중심의 생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동차 보급 확대는 대중 교통 수단이라는 대중성에 바탕을 둔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패밀리카 시대는 가족 단

위의 욕구 분출이 탈대중화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개인 자신의 삶을 표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더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형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④ 레저 문화의 정착: 현재로서는 각종 레저와 스포츠 관련 시설의 부족과 일부 계층을 겨냥한 운영으로 일반인들이 욕구는 있으되 이들 활동에 소외되고 있는 실태인데, 앞으로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고급 레저와 스포츠 관련 시설이나 설비들이 더욱 대중화하면서 레저 문화는 더욱 대중화할 것이다.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가치관의 변화 역시 라이프스타일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가치관의 변화 가운데서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줄만한 측면들을 정리한다.

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혼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화 정책으로 개인주의가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전통으로의 회귀 경향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기업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 경향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집단 중시의 라이프스타일과 개인 중시라는 산업사회에서의 전형적인 라이프스타일이 병행 또는 혼재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 내지는 다원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② 자연주의 추구: 산업화에 따른 환경 오염과 산업 문명에 대한 염증, 그리고 산업 문명의 한계를 인식하는 층들이 증가하는 것은, 서구식 자연관에 대한 회의를 야기시키면서 동양의 조화 사상을 중심으로 한 자연주의로의 회귀 경향을 낳고 있다. 환경지향적인 라이프스타일, 건강지향적인 라이프스타일, 한방과 우리 전통의 식이요법을 비롯한 민간 요법이 중시되는 경향,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레저와 레포츠가 선호되는 현상들이 이러한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연주의로의 회귀와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③ 정신주의의 부활: 산업사회의 물질 문명에 염증을 느끼는 층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 문명이 중시되는 경향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정신 영역이 중시되는 것은 이성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심상과 물질이라는 외적 요소가 아닌 마음이라는 내적 요소의 충족이 중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창작 활동에 대한 욕구 증가, 동양의 기와 단전호흡에 대한 관심, 레저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남녀관의 변화: 여성들의 교육 기회 증가와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따른 여권 신장으로 남녀관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 여권 신장은 궁극적으로 여성들 자신에 대한 의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남성의 기득권 영역은 축소될 것이어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생활양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여성들의 의식 변화와 자주적 소득의 증가

는 기존의 가정이나 남성애에 매여 이루어졌던 소극적인 소비 형태를 여성 자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며, 개인주의 경향과 더불어 여성들 자신의 욕구 분출이 한층 높아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는 가사, 쇼핑 등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생활 영역에의 동참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⑤ 결혼관의 변화: 소득을 비롯한 제반 생활여건의 향상으로 삶의 질적 만족을 추구하려는 층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전의 사회적 '틀'에 기초한 가정이라는 의미보다 개인들의 삶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형태의 가정이 선호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삶의 동반자적 의미라는 측면에서 배우자 상은 재조명될 것인데, 출산과 생리적 욕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晩婚**이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거, 계약 결혼 등 임시적 성격을 띠는 가정 형태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로 인하여 가족을 위한 희생에 바탕을 둔 가정의 영속성은 개인의 삶이 중시되는 경향과 더불어서 부분적으로라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이로부터 이혼과 재혼, 그리고 독신 추세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들은 라이프스타일과 소비패턴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⑥ 자녀관: 산업사회의 사회 이동성으로 인한 지위 향상에의 열망, 여성들의 개인의 삶 중시 경향, 그리고 생산 주체가 아닌 소비 주체로서의 자녀라는 인식으로 소수의 자녀가 꾸준히 선호될 것이다. 물론, 무자녀 선호나 다산을 선호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나,

보편적으로는 소수의 자녀가 선호될 것이다.

소득은 증가하는 데 비해 자녀 수가 감소함으로써 자녀들을 위한 부모들의 소비는 양적으로 보다 집약화되고 질적으로도 향상됨으로써 자녀들의 소비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사회 체제의 고도화와 경쟁의 심화로 조기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아적부터의 자녀를 위한 소비는 늘게 될 것인데, 한편으로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열망을 투사시키던 기존의 부모들의 자세에도 변화가 올 것이어서 맞벌이 부부의 증가 추세, 교육의 양적 증가 추세와 더불어 자녀들의 자주적인 소비 비중도 증가하게 되어 자녀들의 소비 주체로서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자녀 수 감소 추세는 육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서 가족 생활 주기(family life-cycle)에도 영향을 주어 부부들의 소비 패턴을 비롯한 라이프스타일에도 변화를 주게 될 것이다.

한국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이상으로 사회 환경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추세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로 인해 예상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방향은 큰 줄기에서는 선진국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과정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산업화의 역사가 짧아서 전통적인 요인이 잔재하고 있으며, 또한 역사적 환경의 차이, 그리고 소득의 차이로 이러한 추세가 조금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전통적인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체면이 중

시되는 풍조와 집단 중시의 풍조, 그리고 소득 수준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대중성이 중시되고 있으며, 성장 우선의 경제 정책으로 근로 시간이 많은 편이어서 노동의 가치를 찾기보다는 편의성이 우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득 불균형과 권위주의적인 사회 체제로 아직까지는 계층별 문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고소득 계층과 지식층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의 생활양식 유형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개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층들이 늘고 있으며, 전반적인 이성적 삶 중시 경향에도 불구하고 감성화 기운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유층들을 중심으로 한 고급화 경향과 더불어 기능성도 중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 지향적 라이프스타일도 나타나고 있다. 참여 의식도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개인 스포츠나 레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건강 지향 풍조로 무공해 식품을 선호하는 탓에 생산소비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 외에 특이한 것은, 전통사회와의 단절 기간이 짧다는 특성과 동양 문화의 우월감을 갖는 층들을 중심으로 전통성이 중시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현재의 경향에 비해 앞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은, 소득의 증가와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층의 증가로 탈대중화 추세와 개성화 추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한국인 특유의 감성을 바탕으로 한 감성화 추세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참여 의식은 개인의 삶 중시 풍조와 더불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근로 여건이 보다 개선되게 되면 생산소비자도

더욱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전통성 중시 풍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동서양 문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혼재되어 나타날 것이며, 소득의 증가와 민주화의 진전으로 현재의 계층별 라이프스타일은 점차 붕괴될 것이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 변화 추세를 개괄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양에서 질로: 빈곤과 결핍의 시대에서 산업화와 더불어 풍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다익선이라는 소비 개념으로 그 동안 쏟아져 나오는 재화를 만끽하던 소비자들이 점차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풍조로 바뀌고 있다. 인간의 물질적 소유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러한 추세의 바탕이 되고 있는데, 정신적 가치가 점차 중요시되는 조류 역시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질을 중시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라이프스타일 추세는 고급화, 환경 지향, 시간 절약, 노동 절약, 공간 절약, 건강 지향, 여가 선호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② 집단 귀속 지향에서 개체 지향으로(대중성의 쇠퇴): 거대한 통합 체제하에서 분업 체제로서 이루어져 온 산업사회는 각 구성원들의 역할이 매우 미세하게 분화된 때문에 개개인 으로서는 매우 무능한 존재일 뿐, 하나의 조직이 갖추어졌을 때에야 유기체적 역동성으로서 힘을 발휘하는 구조였다. 물론 이러한 구조는 자본가들이 형성한 구조로서, 개개인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집단 귀속적 생활양식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보화의 기운과 소득의 증가, 기업들 간의 경쟁 격

화, 사회복지제도의 정착으로 개인의 개인 생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자신을 통제하고 억제하던 기존의 집단 귀속 지향이 점차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 추세는 구체적으로, 자아 표현과 자기 주장의 증가, 탈대중화, 개인 생활 중시, 다양한 삶 추구, 개인 스포츠와 레저의 선호,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생활 패턴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③ 소비의 다원화(다양한 삶 추구): 산업화 이래 꾸준히 전개되어 온 평등사상과 인권보호로 주소득층인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소비가 청년, 청소년, 아동으로 확산되어 왔으며, 여권 신장 운동으로 남성 위주의 소비에 여성들이 가세하여 왔다. 특히 여성들의 소비는 남녀 평등 사상의 확산에도 기인한 것이나, 정보화사회, 지식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노동이 소프트화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로 고령층들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계층도 점차 소비에 가세하고 있다.

소비 주체의 다원화와 더불어 다양한 삶을 지향하는 추세도 소비의 다원화를 더욱 자극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추세는 구체적으로, 여성들의 적극적 소비, 노년층의 소비 활동에의 점증적 참여, 다양한 삶의 지향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와 다양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④ 이성 중시에서 감성 중시로: 산업사회는 분업 체제에 따른 동시화, 표준화라는 특성으로 각 구성원들의 이성적 삶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사회 생활이란 감성을 억제한 이성이라는 반쪽만의 생활로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나머지 반쪽인 감성적 삶은 여가 활동을 통하여 충족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적인 생활 구조나마도 국가간, 기업간 경쟁으로 인한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는데, 소득의 증가, 정보화와 자동화, 복지 제도의 정착 등으로 생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서 감성적 생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경향과 감성 중시 경향은 다원화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감성 중시라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추세는 구체적으로 경제성 개념의 퇴색, 오락성·예술성의 중시, 다양한 삶 추구, 낭만성 추구, 정 중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생산소비자: 분업 체제와 생산-소비의 분리로 노동 소외를 맛보았던 산업사회의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노동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층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은 스스로 생산하고 그 것을 소비함으로써 생산과 소비의 일체감을 추구하는 층들인데, 개성화 기운에 따라 획일적인 제품에 염증을 느끼는 층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생산소비자의 등장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생산소비자라는 새로운 개념의 생산-소비를 지향하는 추세는 구체적으로 창작 활동의 증가, 스포츠와 레저의 활성화, 개성 소비 지향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⑥ 시간 개념의 중시: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경향과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소비자들은 예전처럼 소비를 위하여 인내하는 시간마저도 아깝게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감성화 추세 역시도 감성의 변화가 비교적 빠르다는 특징으로 욕구와 소비를 동일시하게 하는 요인인데, 정보화와 자동화, 그리고 가정 배달 시스템이라는 개인 마케팅 성격의 유통망의 구축 등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시간 개념 중시 추세는 보다 구체적으로 편의성 중시, 다양한 생활 추구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⑦ 기호화: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각종 재화와 정보화에 힘입은 무수한 정보들을 일일이 언어로서 표현한다는 것은 더 이상은 불가능할 뿐더러, 일반인들도 이러한 문구에 점차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있다. 그 만큼 개인의 시간이 점차 소중해지고 있고, 감성화 기운에 따라 느낌으로서 판단하려는 층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호화 추세는 구체적으로, 브랜드 선호, 이미지에 의한 구매, 감성화 등의 라이프스타일 지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⑧ 관람에서 참여로: 바쁜 사회 생활과 사회 생활로부터의 정신적 피곤함 등으로 관람하기를 즐겨하는 층들이 점차 손수 참여하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다. 참여 의식의 증가는 개인 생활이 중시되는 풍조와도 관련된 것으로, 여가 시간의 확대도 이러한 참여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간파한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참여 의식의 증가는 구체적으로, 창작 활동 선호, 스포츠와 레저의 활성화, 패션 지향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⑨ 전통 지향: 성공적인 경제 발전에 따른 경제 규모의 확대와 소득의 증가로 민족적 우월감을 느끼는 층들과, 환경 문제의 심화에 따른 서구 문명에 대한 회의, 그리고 건강 지향을 추구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전통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성을 추구하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기업들에게 하나의 위협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반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점차 문화적 소비로 이행해 가고 있는 우리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잘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가가 1990년대의 우리 기업들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생활자라 불리우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만이 아니라, 자사의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자들을 포함한 폭넓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 및 서비스의 변화만이 아니라 조직을 비롯한 기업 문화, 근로 환경, 생산 체계 등 기업 전반에 있어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 기업들은 소비자를 이해하는데에 적극적이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는 때문에 소비자의 변화와 동태를 파악하는 데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소비자 조사는 이제는 비용의 개념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고객을 유지하고 창출하기 위한 투자이다. ♣